

# 휴가 끝 국회 秋鬪 예열

### 여야 8·9월 국회, 국감 일정 조율...추석 전 국감 공감대

### 8월 임시국회 박정부 예산 결산...與, 국정농단 사건 조준

여야가 9월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일정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월 국회를 18일에 개최하고 추석 전에 국감을 하는 안에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정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기국회는 추석 전=민주당은 '이달 18일과 다음달 11일부터 각각 임시국회와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에서 최종입장은 아니지만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두 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아직 의사결정을 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과 해외 출장 중이라 확인 못 한 것 같고 바른정당도 아직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석 전에 할지 후에 할지 나눠서 할지 등 의견수렴 중인데 중간 결과로는 추석 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볼 계획"이라며 "바른정당도 결정 못 내린 것 같지만 추석 후에 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내에서) 임시국회는 8월 18~31일, 국감은 추석 전(9월 11~30일)에 한다는 의견 분포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4일 회동을 하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

◇8월 결산국회 신경전=여야는 정기국회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번 임시회가 지난해 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 별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관련 정책 검증 준비에 분주하다. 반면, 한국당은 반박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 '2016년 문체부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총 16개 문화예술 사업 기획·집행에 최씨와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22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도 "여당이지만 결산국회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며 "특히 '우병우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에 들어간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으로는 최씨의 딸인 정유리가 입학한 이화여대,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가 재직 중인 순천향대에 지원된 교육부 각종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기획,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해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노리고 미얀마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장 등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이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대표-검찰총장의 만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탈원전 엄호·적폐청산 가속 '쌍끌이'

### 野 '급전지시' 공격 반박...“국정원 댓글사건 한국당도 공범”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쌍끌이' 전략을 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급전지시'를 빌미로 한 야권의 공격과 일부 '친 원전' 성향 언론의 편향 보도를 반박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속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년째 해운 급전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면서 "가짜 뉴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급전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를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 계약한 전기 소비자를 상대로 절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절전은 2~3%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마치 탈원전을 위해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급전지시와 관련해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급전지시는 지난해 전력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위기가 온 날에도 문제가 됐다.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급전지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다. 위기의식을 발생시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야권이 제기한 '전기가 부족한데도 은밀하게 급전지시를 내려하고 탈원전을 강행한다'는 음모론에 대응해 우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급전지시를 겨냥한 정면대 시각의 음모론으로 맞붙을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국정원 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MB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임기 대부분을 여론조작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이다.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댓글조작팀과 별도팀에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관여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규모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민주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호기자 khh@

## 4野 “박기영, 과학계 적폐”

### 황우석 논문 조작 연루 논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반대

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자꾸 인사 자중수를 둔다"며 "차관급에 임명된 박기영 본부장은 혁신의 책임자가 아닌 청산해야 할 적폐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황우석 사태'의 핵심 관계자"라며 "박 혁신본부장은 한 번도 입장 표명이 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기영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에서 엄청난 책임을

진 사람"이라며 "진보진영조차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도 지난 8일 구두논평을 통해 "박 본부장은 과거 황우석 박사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연구비를 부담하게 타낸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박 본부장 임명)은 과학기술혁신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연구윤리와 연구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를 앉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영란법” 개선안 조속 마련

###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이달 내 AI 방역 대책 발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계획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관계부처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줄어 농가가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축산물을 정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정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올리는 방

안이 현실적이다.

김 차관은 쌀값 안정, AI,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다른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쌀 수급 대책, AI,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등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을 것이고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AI 방역 보안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가금사육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예방 중심의 가축질병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헛소문”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 소문이 9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졌으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국무회의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로 열릴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15일 광복절이라 하루 늦춘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b>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b></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 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li> <li>◆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li> <li>◆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li> <li>◆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li> <li>◆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li> </ul>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li> <li>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li> </ul> </li> <li>② 실전투자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p> <p>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div> </li> <li>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li> <li>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li> </ul> </li> </ol>
---	---	--	--